

### 민주 한병도 의원, 도당위원장 출마 선언

# “혁신으로 전북 도약 이끌 것”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 한병도 의원은 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과 성공으로 전북의 도약을 이끌고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2024 총선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 전북도당

차별하게 견제하고, 어려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유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게 지금의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의 현안에 관해서 “자신이 위원장이 되면 새만금특별자치도, 남원 공공과대 등 전북의 모든 현안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성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출마 포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선거철 여론조사 주소 바뀌기 등 지방자치의 폐해들이 전라북도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공천 되면 당선된다는 생각들이 이러한 불만을 자행하게 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

다면 민주당에 미래가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한병도 의원은 전북지역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다. /김경수 기자

“뼈아픈 반성·뼈 꺾는 혁신으로 다시 일어서야”  
 “실정 거둬 정부여당 견제 등이 해야 할 역할” 강조  
 “여론조사 주소 바뀌기 등 반복시 미래는 없어”

위원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뼈아픈 반성과 뼈 꺾는 혁신으로 민주당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며 “그 중심에는 일반당원부터 지역위원장까지 전북도당 구성원 모두가 일터로 뫄뫄 뫄뫄 전북도당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8%이다”며 “실정을 거둬주는 정부 여당을

를 내도록 하겠다”며 “자신은 소봉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고 말하며 전북의 현안들을 전라북도 의원들과의 워킹 구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를 재선거 공천여부에 관해서는 “복잡할수록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위 “경찰국 신설 유감... 법적 대응 조치 수행”

김호철 위원장 “법령상 문제제기 전혀 반영안돼”  
 “행안부장관이 치안사무 수행하는지 살필 것” 밝혀  
 “대우조선 특공대 회의 주도 가능한지 의문” 지적도

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 김호철)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통

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법이 정하는 법적조치의 시한도 있는 만큼, 그 시한대로 결론을 내려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국 운영 등)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

관이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 여부를 놓고 경찰청 지휘부와 논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서는 “과연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장관이 그런 회의를 주재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찰 치안에 관한 중요 정책 결정은 경찰위가, 치안사무의 집행은 경찰청이 담당하는 이 제도는 확고하게 32년간 이어져오고 있고 이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위는 ‘심의·의결의 기속력을 가진 합의제 의결기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향후 국무총리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 모두 경찰위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한다며,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 및 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에는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경찰위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현 경찰위원들은 국회 논의에 따라 실질화 법안이 완성된다면,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지방자치 2.0 시대 자치분권 실질화 모색

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 세미나 열고 발전 방향 논의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대표의원 최형열)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법 발전 방안 및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각종 법과제도 실태분석 및 후속 입법과제에 대한 연구 필요성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책임연구 윤수봉 의원(완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의 확실한 변화를 위해 정책 마련 및 조례 제·개정 등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방자치 2.0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 모색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1991년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된 이후 32년 만에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화되었고, 인사권이 독립되는가 하면 정책지원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강화됐다. 세미나를 마련한 최형열 대표의원(전주5)은 “의회에서도 새로운 지방자치 2.0 시대에 맞게 나아갈 방향을 고민할 시점”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맞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 역할과 운영 등 주민 주권에 입각한 전북형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지방자치법연구회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법 연구로 지방자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최형열 대표의원과 윤수봉 연구책임자를 비롯해 총 11명의 의원들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최형열(전주5),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 김정기(부안), 윤수봉(완주), 윤정훈(무주), 염영선(정읍2), 양해석(남원2), 장연국(더불어민주당 비례), 전용태(진안) 의원으로 구성됐다. /뉴시스

##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지난 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안전·문화·건축·관광 등 관련 분야 의정발전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의정발전자문위원은 (사)한국이동청소년 안전교육협회 전 부본부 고병석 대표이사, 예원대학교 교양학부 김도영 학부장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남해경 교수, (사)부안야기 정재철 이사, 호원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이명찬 교수, 한국관광품질인증 이종린 평가위원 등 6명이며, 이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이며 앞으로 안전·문화·건축·관광분야 주요 쟁점 안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에 기술적·학술적 자문을 제공하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 의정발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의 활발한 자문활동 결과를 상임위의 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